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Married Couple Communication on the Satisfaction of Marriag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Intimacy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김정희

Konkuk Continuing Education Center
Instructor Kim, J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how communication between married men and women is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verified the relationship through the medium effect of marital intimacy. A total number of 365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30s-50s were survey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for technical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para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method by Baron and Kenny(1986).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e group, education period and household income.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through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more importantly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are influential in marital satisfaction. Third,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marital intimacy had partial mediation with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we verified that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are vital in order to improve marriage satisfaction for married men and women.

Key Words : 결혼만족도(Marriage Satisfaction), 부부의사소통(Couple Communication),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기혼남녀(Married Couple)

* 주저자, 교신저자: 김정희(nixyah@hanmail.net)

I. 서론

1960년대 산업화를 이후로 우리 사회는 높은 경제성장과 도시화, 평등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여성의 역할로 규정 지어졌던 가사 및 돌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가족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중 결혼도 예외는 아니다.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사회의 또다른 개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인생의 관문이며 생애주기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온 두 남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부부가 되고 함께 공유된 일상에서 실질적인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부부는 많은 갈등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혼생활은 개인에게 있어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혹은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결혼의 만족 정도에 따른 결과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개인 주변의 가족 및 사회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가족의 핵심이 부자(父子)중심 이었다면 현대사회는 부부(夫婦)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건강한 가정의 여부는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과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화목한 건강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통과 친밀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부중심의 가족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저하시키는 여러 갈등요인들이 부자(父子)중심 사회에서의 갈등 관계보다 좀 더 쉽게 부부의 단절을 결정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이혼율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2019)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

면 우리나라 최근 10년간의 이혼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2018년 이혼은 10만 8천 건으로 전년(10만 6천 건)보다 2.5%(2천 7백 건) 증가하였다. 평균 이혼연령은 10년 전에 비해 남자 4.0세 상승한 48.3세, 여자 4.3세 상승한 44.8세로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연령별 이혼건수는 남자 45-49세(18.1%), 50-54세(15.2%), 40-44세(14.8%) 순이었고, 여자는 45-49세(17.6%), 40-44세(15.8%), 35-39세(15.8%) 순이었다.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행복함과 불행함, 즐거움 혹은 즐겁지 않음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Glenn, 1990). 하지만 결혼만족의 개념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결혼행복(marital happiness), 결혼 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등 용어조차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희진, 2004).

부부가 그들의 결혼생활에 만족 할수록 관계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결혼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아 결국은 이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을 예방하고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부부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보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기혼남녀의 이혼을 예방하고 결혼생활 만족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책 강구에 노력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호관계 요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홍순건, 2006; 김세련, 2010; 윤수란, 2013; 김의진, 2014; 이명신·김유순, 2016), 연령이 낮을수록(김은정, 1992; 유성경·임영선, 2016), 교육수준(Scanzoni, 1975; 이정은·이영호, 2000; 조지은, 2005; 서정선, 2007; 구효남·황향임, 2014)과 가구소득(윤수란, 2013; 임나현·하규수, 2012; 구효남·

황향인, 2014))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이미숙, 1997), 다자녀일수록(이정은·이영호, 2000; 김민녀·채규만, 2006)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 무자녀인 경우(조정문, 1995)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의 연구는 자아존중감(노성향, 2018; 심의경·오봉옥, 2018; 김순숙, 2012; 김성일, 2014), 우울(서석원·이대균, 2013; 차근영·김석선·김민지, 2017; 윤지연·강선경, 2018), 갈등(홍구화·서영옥, 2012; 김의진, 2014; 박희정·변상해, 2017), 스트레스(김시연·서영석, 2008; 박주희, 2015; 이선화, 2019) 등이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계 요인의 연구는 의사소통(Lewis & Spanier, 1979; 이정은·이영호, 2000; 박영화·고재홍, 2005; 김진분·최규련, 2007;), 가사분담(유계숙 외, 2011; 신명숙, 2012), 친밀감(정화숙, 2010; 손강숙주영아, 2015; 박희정·변상해, 2017), 배우자지지(안옥희 외, 2010; 박옥자 외, 2015; 이지민, 2015) 등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비롯해 자아존중감, 우울, 갈등과 같은 내적 요인, 의사소통, 친밀감, 배우자지지와 같은 상호관계 요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결혼만족도는 특정한 한 가지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자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부부를 둘러싼 가족의 다양한 요인들과 부부의 관계에 해당하는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 따른 결과는 모든 기혼남녀의 이혼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결혼만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은 부부의 사소통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이는 서로 간의 생각, 감정, 사실, 믿음 등의 내용을 상호작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 이해하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다(홍미기, 2009). 따라서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강차선, 2006).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 중에 가장 지속적이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부 간 건강한 의사소통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송성자, 1985). 부부관계는 효과적 의사소통의 횟수가 많고, 자기표현이 많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서로 간의 감정이입이 많으면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임성은, 2014). 반면 비난, 방어, 경멸, 냉담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경우는 불행한 결혼생활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부에게 있어 건강한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그들의 결혼 지속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부부), 기혼여성, 자녀 양육기 부부로 구분하여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수란(2013)의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과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운과 조유현(2015)도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의사소통의 하위영역을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적 의사소통, 손상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철회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났고, 손상적 의사소통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영향력이, 의사소통철회 의사소통과는 부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빈 외(2018)는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의사소통 패턴의 간접효과에 대해 부부 각각을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하위요인은 건설적 의사소통, 자기요구-배우자철회, 배우자요구-자기철회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아내와 남편의 배우자이상화(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배우자에 가깝다고 평가)는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아내와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아내의 배우자이상화는 아내 남편요구-아내철회를 낮게 지각하고 이는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켰다. 아내 배우자이상화는 아내 아내요구-남편철회를 감소시키고 이것은 아내 결혼만족도와 남편 결혼만족도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순옥과 남상인(2019)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형 일수록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유계숙 외(2011)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 결혼만족도 불일치와의 관계에서는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선화(2019)의 유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기(2009)는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에 있어 부부의사소통은 부부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은 감소되고 이것은 부부적응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녀가 양육기에 있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지은(2005)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기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기 부부들의 부부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민(2015)은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부의사소통은 향상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핵심적 요인으로 부부의사소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유교문화의 영향이 컸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부부 사이의 유대감과 지지가 중요시되는 부부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은 다양

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다. Moss & Schwebel(1993)은 상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바람직한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 및 헌신의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Hatfield(1984)은 두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의 방식에 있어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부부가 친숙해 지려는 친밀감의 상호성에 중점을 두었다. 국내 학자로 박봉순·김영희(2010)는 부부친밀감이란 서로 간의 깊이 있는 관계의 속성에 대한 평가로 서로를 존중하고 돌봐주면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부부관계에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 보고 결과적으로 부부의 친밀감은 그들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라고 하였다.

부부친밀감의 구성요소에 대해 Schaefer & Olsen(1981)은 정의적, 사회적, 정신적, 오락적, 성적, 지적, 미적으로 구성하였고, Waring(1984)은 애정, 표현성, 양립성, 응집, 갈등해소, 성, 정체감, 자율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Broucke et al.(1995)은 친밀성 문제, 합의, 개방성, 애정, 헌신으로 부부친밀감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였으며,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인지적 측면과 상호 공유성을 강조하였다.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198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부부), 기혼여성, 노년기 부부로 대상을 구분하여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화숙(2013)은 마음챙김, 부부스트레스,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부부친밀감, 부부스트레스 순으로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정과 변상해(2017)의 정서적친밀감 및 성적친밀감으로 구성된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강숙과 주영아(2015)의 연구에서도 역시 성적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공주와 강성금(2019)의 연구에서

도 부부갈등과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적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성은(2014)의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소중 인지적 요소, 성적 요소 순으로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연우(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이 정서적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옥과 김희선(2018)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우울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승익(2014)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년기 재혼자들이 성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느끼는 성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결정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친밀감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3.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김혜원, 한소영과 이지연(2017)은 중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불안/회피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행동 및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애착불안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을 이중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불안이 높

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은 다시 부부친밀감을 떨어트리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결혼만족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언어 및 감정 표현이 개방적인 부부는 높은 성적친밀감을 보이고 이는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된다는 Boyd(197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현정(2014)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성적친밀감은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결혼만족도를 높게 한다고 하였다. 김길현(2013)은 신 노년층의 부부여가 및 상호존중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 노년층의 부부여가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부부친밀감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존중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부부친밀감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부부의사소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의사소통, 부부친밀감, 결혼만족도 세 변인의 부분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본 연구와 같이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본 연구는 드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을 하나의 모형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기혼남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한 편의표집¹⁾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 응답자는 통계법 33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지에 솔직히 임해 줄 것을 설문지 배포자에게 당부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였다. 본 조사 실시 전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 실시 후 신뢰도 검사 및 질문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완성된 설문지는 예비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제외하고 설문지 링크를 SNS에 공유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389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과 누락으로 인한 24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65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 Spanier(1976)에 의해 개발된 Dyadic Adjustment Scale(DAS)을 이민식과 김종술(1996)이 번안한 부부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항상 불일치’ 1점, ‘자주 불일치’ 2점, ‘가끔 일치’ 3점, ‘거의 일치’ 4점, ‘항상 일치’ 5점)로 총 32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에서 중요시되는 문제를 결정하는 의견일치(13문항), 어떠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집력(5문항), 관계만족(10문항), 애정표현 및 성생활 만족에 대한 애정표현(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1)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강원, 부산, 인천, 익산에 소재한 직업이 사회복지사, 한의사, 회사원, 군인, 주부, 프리랜서 등

2) 독립변수

(1) 부부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Olson et al.(1983)에 의해 개발된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Inventory의 의사소통 척도를 임영란(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부부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들은 부부 상호간 신념 및 중요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지와 서로 간의 정보교환 방식에 대한 지각, 배우자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 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에 초점을 두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로 나타났다.

(2)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 측정을 위하여 이경희(1995)의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부부가 배우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결점까지 이해 및 수용하는 정도의 인지적 친밀감(5문항), 언어적 표현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밀접함의 정도로 배우자에게 느끼는 적합함 및 일치감 정도의 정서적 친밀감(5문항), 성적 욕구의 만족 정도 또는 노력의 정도로 성을 개방적으로 관계증진을 위해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성적 친밀감(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개발자인 이경희(1995)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기간, 결혼기간, 동거여부, 가구소득, 취업상태, 자녀수, 막내연령, 부양부모로 설정하였다. 결혼기간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기간을 의미하며, 가구소득은 월 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기혼남녀 36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세부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2모형은 1모형에 부부의사소통을 추가하고, 3모형은 2모형에 부부친밀감을 추가하였다. 넷째,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방법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표본에 포함된 기혼남녀 365명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60명(43.8%), 여자 205명(56.2%)이었다. 연령대는 30대 71명(19.5%), 40대 203명(55.6%), 50대 91명(24.9%)이었다. 교육기간은 12년 이하 88명(24.1%), 13~15년 이하 74명(20.3%), 16년 148명(40.5%), 17년 이상 55명(15.1%)이었다. 결혼기간은 10년 이하 84명(23.0%), 11~20년 이하 175명

(47.9%), 21년 이상 106명(29.0%) 이었다. 동거여부는 동거 332명(91.0%), 비동거 33명(9.0%) 이었다.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하 98명(26.8%), 401~600만원 143명(39.2%), 601~800만원 67명(18.4%), 801만

원 이상 57명(15.6%) 이었다. 취업상태는 정규직 194명(53.2%), 비정규직 36명(9.9%), 프리랜서 36명(9.9%), 농·축·어업 7명(1.9%), 전업주부 70명(19.2%), 기타 22명(6.0%) 이었다. 자녀수는 자녀 없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65)

변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60	43.8		
	여자	205	56.2		
연령대	30대	71	19.5	44.95	6.01
	40대	203	55.6		
	50대	91	24.9		
교육기간	12년 이하	88	24.1	15.22	2.86
	13~15년 이하	74	20.3		
	16년	148	40.5		
	17년 이상	55	15.1		
결혼기간	10년 이하	84	23.0	16.35	7.77
	11~20년 이하	175	47.9		
	21년 이상	106	29.0		
동거여부	동거	332	91.0		
	비동거	33	9.0		
가구소득	400만원 이하	98	26.8		
	401~600만원	143	39.2		
	601~800만원	67	18.4		
	801만원 이상	57	15.6		
취업상태	정규직	194	53.2		
	비정규직	36	9.9		
	프리랜서	36	9.9		
	농·축·어업	7	1.9		
	전업주부	70	19.2		
	기타	22	6.0		
자녀수	자녀 없음	21	5.8		
	1명	60	16.4		
	2명	235	64.4		
	3명 이상	49	13.4		
막내연령	자녀 없음	21	5.8		
	미취학	69	18.9		
	초등학생	105	28.8		
	중고등학생	94	25.8		
	성인자녀	76	20.8		
부양부모	비 부양	323	88.5		
	본인 부모님	21	5.8		
	배우자 부모님	16	4.4		
	양가 부모님	5	1.4		

음 21명(5.8%), 1명 60명(16.4%), 2명 235명(64.4%), 3명 이상 49명(13.4%) 이었다. 막내연령은 자녀 없음 21명(5.8%), 미취학 69명(18.9%), 초등학교 105명(28.8%), 중·고등학교 94명(25.8%), 성인자녀 76명(20.8%) 이었다. 부양부모는 비 부양 323명(88.5%), 본인 부모님 21명(5.8%), 배우자 부모님 16명(4.4%), 양가부모님 5명(1.4%) 이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방법은 Duncan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연령대($F=5.35, p<.01$), 교육기간($F=3.21, p<.05$), 가구소득($F=6.00, p<.01$) 이었다. 즉, 기혼남녀의 연령대가 40대와 50대 보다 30대인 경우, 교육기간이 전문대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하 보다 601만원 이상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IF)²⁾를 적용하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결혼기간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용이한 해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와와의 차이검증 후 평균이 높은 값을 1로 하여 가변수로 변경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3단계로 실시하였다. 1단계(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2단계(모형)는 부부의사소통, 3단계(모형)는 부부친밀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1모형의 설명력은 1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beta = -.414, p<.001$), 막내연령($\beta = .303, p<.001$), 가구소득($\beta = .179, p<.01$), 성별($\beta = .136, p<.05$), 자녀수($\beta = .129, 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막내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별이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모형의 설명력은 7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서 유의미하였던 성별의 영향력은 제거되었다. 2모형에서는 부부의사소통($\beta = .805, p<.001$), 연령($\beta = -.126, p<.05$), 막내연령($\beta = .112, p<.05$), 자녀수($\beta = .89, p<.01$), 가구소득($\beta = .063, p<.05$)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즉,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모형의 설명력은 82.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 유의미하였던 가구소득과 자녀수의 영향력은 제거되었다. 3모형에서는 부부친밀감($\beta = .553, p<.001$), 부부의사소통($\beta = .384, p<.001$), 막내연령($\beta = .082, p<.05$), 연령($\beta = -.080, p<.05$)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막내연령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다중공선성 진단 기준은 Tolerance = 0~1점, VIF = 1~10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채구목, 2014).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N=365)

변수		빈도	결혼만족도		
			평균(SD)		t/F
성별	남자	160	3.63(.64)		1.38
	여자	205	3.53(.64)		
연령대	30대	71	3.79(.54)	b	5.35**
	40대	203	3.51(.69)	a	
	50대	91	3.58(.56)	a	
교육기간	전문대 이하	162	3.49(.64)	a	3.21*
	대학교	148	3.63(.62)	ab	
	대학원 이상	55	3.70(.67)	b	
결혼기간	5년 미만	43	3.79(.67)		2.07
	6~10년	41	3.45(.70)		
	11~15년	78	3.57(.58)		
	16~20년	97	3.62(.63)		
	20년 이상	106	3.52(.64)		
동거여부	동거	332	3.58(.63)		.10
	비동거	33	3.57(.74)		
가구소득	400만원 이하	98	3.48(.70)	a	6.00**
	401~600만원	143	3.49(.66)	a	
	601~800만원	67	3.83(.51)	b	
	800만원 이상	57	3.70(.53)	b	
취업상태	정규직	194	3.57(.71)		.96
	비정규직	36	3.42(.61)		
	프리랜서	36	3.74(.54)		
	농축어업	7	3.47(.48)		
	전업주부	70	3.62(.55)		
	기타	22	3.59(.55)		
자녀수	자녀없음	21	3.90(.56)		2.53
	1명	60	3.51(.73)		
	2명	235	3.55(.62)		
	3명 이상	49	3.68(.61)		
막내연령	미취학	69	3.59(.60)		.14
	초등학생	105	3.56(.64)		
	중고등학교	94	3.53(.68)		
	성인자녀	76	3.58(.63)		
부양부모	비부양	323	3.60(.63)		1.26
	부양	42	3.46(.69)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N=365)

변수 ³⁾		1모형				2모형				3모형			
		B	β	tol	vif	B	β	tol	vif	B	β	tol	vif
(상수)		3.711				.783				.630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175*	.136	.902	1.109	.025	.019	.883	1.132	.012	.009	.883	1.133
	연령	-.045**	-.414	.385	2.598	-.014*	-.126	.365	2.739	-.009*	-.080	.363	2.758
	교육기간	.011	.049	.908	1.101	.000	.001	.905	1.105	-.003	-.014	.903	1.107
	동거여부	.090	.039	.959	1.043	.068	.030	.959	1.043	.053	.023	.958	1.044
	가구소득	.110**	.179	.905	1.105	.039*	.063	.886	1.128	.026	.043	.884	1.132
	취업상태	.116	.086	.896	1.116	.009	.007	.888	1.127	.036	.027	.885	1.130
	자녀수	.147*	.129	.909	1.101	.101**	.089	.906	1.103	.016	.014	.866	1.154
	막내연령	.185***	.303	.409	2.442	.068*	.112	.399	2.504	.050*	.082	.398	2.512
부모부양	.083	.040	.928	1.078	.073	.036	.928	1.078	-.001	-.001	.917	1.090	
부부의사소통						.713***	.805	.908	1.101	.340***	.384	.371	2.693
부부친밀감										.511***	.553	.365	2.738
R ² (Adj. R ²)		.122(.099)				.711(.702)				.823(.817)			
F(p)		5.166***				81.879***				139.878***			

* $p < .05$, ** $p < .01$, *** $p < .001$

3.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검증

1) 부부친밀감의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의 매개효과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부부의사소통에 대해 매개변수인 부부친밀감을 회귀시킨 결과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62$, $p < .001$). 2단계는 독립변수인 부부의사소통에 대해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를

회귀시킨 결과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05$, $p < .001$). 3단계는 독립변수인 부부의사소통과 매개변수인 부부친밀감을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회귀시킨 결과 부부의사소통($\beta = .384$, $p < .001$)과 부부친밀감($\beta = .553$, $p < .001$)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부부의사소통의 경로계수가 3단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05 \rightarrow \beta = .384$). 즉, 매개변수인 부부친밀감은 독립변수인 부부의사소통과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Dummy Variable

성 별: 1(남성), 0(여성),
동거여부: 1(동거), 0(비동거),
취업상태: 1(프리랜서, 전업주부, 기타), 0(정규직, 비정규직, 농·축·어업),
부모부양: 1(비부양), 0(부양)

(표 4) 부부친밀감의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N=365)

변수	단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B	β	B	β	B	β
	(상수)	.300		.783		.630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025	.018	.025	.019	.012	.009
	연령	-.010	-.082	-.014*	-.126	-.009*	-.080
	교육기간	.006	.027	.000	.001	-.003	-.014
	동거여부	.029	.012	.068	.030	.053	.023
	가구소득	.024	.036	.039*	.063	.026	.043
	취업상태	-.053	-.036	.009	.007	.036	.027
	자녀수	.167***	.136	.101**	.089	.016	.014
	막내연령	.035	.054	.068*	.112	.050*	.082
	부모부양	.147	.066	.073	.036	-.001	-.001
부부의사소통	.730***	.762	.713***	.805	.340***	.384	
부부친밀감					.511***	.553	
R ² (Adj. R ²)		.635(.624)		.711(.702)		.823(.817)	
F(p)		57.865***		81.879***		139.878***	

* $p < .05$, ** $p < .01$, *** $p < .001$

2) 부부친밀감의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인 부부의사소통과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부부친밀감의 정확한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Z 값은 12.186($p < .001$)으로 산출되어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부부친밀감의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경로	Z값	p
부부의사소통 → 부부친밀감 → 결혼만족도	12.186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혼남녀 3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값들을 IBM SPS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토대로 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대, 교육기간, 가구소득은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의 경우 30대, 50대, 40대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즉, 부부가 신혼기에는 결혼만족도가 최고에 달하고 이후 자녀의 출산 및 육아, 청소년기를 보내는 시기 동안 낮아지게 되며, 이후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부만 남았을 시기에는 다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ollins &

Cannon(1974)의 U자형 결혼만족도 모형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교육기간은 대학원 이상이 전문대학 이하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이태순, 2015), 주부(김호경, 2011), 결혼이주여성(이정숙,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교육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가구소득은 601만원 이상인 경우가 6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여성 과 결혼한 한국남성(정하나, 2009), 노년기 부부(임나현·하규수, 2012),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호경(201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경제상태가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간은 가족자원 중 가구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환언하자면, 가구소득이 낮은 부부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은 부부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문화생활 등 부부가 함께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들은 부부 대화의 질과 친밀감을 증가시켜 결국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자녀수, 막내연령이었으며 무엇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부 관계요인으로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 이었다.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는 어느 한 가지 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기혼남녀(정화숙, 2010), 기혼여성(임성은, 2014), 난임여성(김미옥·김희선, 2018)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하였다. 즉, 부부는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서로 나누고, 정보교환 방식에 대한 지각 및 의사소통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의견 일치와 어떠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응집력, 관계만족 및 애정표현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해 독립적·자율적 존재로 인정하며 결점까지 이해하고 언어적 표현이 없어도 심리

적인 밀접함과 일치감을 느끼고 성적 욕구에 대한 만족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부 간의 요인들이 결국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대를 비롯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부부의사소통 교육 및 부부친밀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부부친밀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고 다시 결혼만족 수준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갈등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공감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부부간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부부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모형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오현정(2014)의 연구에서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혜원 외(2017)의 연구에서도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부부 결혼만족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좀 더 가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부부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체계화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 수준은 성별, 연령, 자녀, 가구소득 요인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라

부부의 욕구가 다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남성들에게 자녀양육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인지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이 과중하다 보면 부부의 정체성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 부부들의 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 여가프로그램과 가족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부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교육 역시 필요하다.

둘째, 결혼만족도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 척도의 경우 하위요인이 의견일치, 응집력, 관계만족, 애정표현으로 주로 부부 관계에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공통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요소와 자녀 요소였다. 따라서 경제적 요소와 자녀 요소를 기준으로 양성평등 및 폭력 요소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실태와 문화에 맞는 적절한 결혼만족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강차선(2006). 부부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구효남·황향임(2014). 30~40대 기혼자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조사. 사회복지경영연구, 1(2), 91-105.
- 3) 김길현(2013). 신노년층 부부관계 변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과 애정생활 및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미옥·김희선(2018). 난임 여성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2(1), 96-108.
- 5) 김민녀·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11(4), 655-671.
- 6) 김성일(2014). 직업군인들의 자이존중감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세련(2010). 사티어 성장모델의 일치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순숙(2012).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 자이존중감,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승익(2014). 노년기 재혼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김시연·서영석(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시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 11) 김은정(1992). 결혼 초기 부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의진(2014). 중년부부의 부부갈등, 여가경험,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김진분·최규련(2007). 군인부부의 의사소통과 직업만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677-1692.
- 14) 김혜원·한소영·이지연(2017). 중년기 기혼 여성의 성인애착불안/회피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행동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3(3), 267-297.
- 15) 김호경(2011).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김희진(2004). 한국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839-853.
- 17) 노성향(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자존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1-15.
- 18) 박공주·강성금(2019).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

- 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4), 247-255.
- 19) 박봉순 · 김영희(2010).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 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9), 1-11.
 - 20) 박영화 ·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71-100.
 - 21) 박옥자 · 여경환 · 관예주 · 윤운승(2015). 배우자의 지지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에니어그램연구, 12(2), 99-119.
 - 22) 박유빈 · 한그림 · 정연우 · 박선웅(2018).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1), 65-81.
 - 23) 박주희(2015).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71-94.
 - 24) 박희정 · 변상해(2017).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36-252.
 - 25) 서석원 · 이대균(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3(5), 279-298.
 - 26) 서정선(2007).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손강숙 · 주영아(2015).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697-718.
 - 28)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9) 신명숙(2012). 경제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부부공유도의 매개효과 검증.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신순옥 · 남상인(2019). 부부의 성격과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관계. 에니어그램연구, 16(1), 59-84.
 - 31) 심의경 · 오봉욱(2018). 자아존중감이 성인의 가족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21, 9(3), 327-340.
 - 32) 안옥희 · 전미순 · 윤미선 · 황윤영 · 김영희(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한국자료분석학회, 12(6), 3137-3151.
 - 33) 오현정(2014). 부부의 자존감, 성적 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유계숙 · 강수향 · 오아림 · 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35) 유성경 · 임영선(2016).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15-439.
 - 36) 윤수란(2013). 한국 기혼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7) 윤지연 · 강신경(2018). 부부의 결혼만족도, 우울 및 알코올 사용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검증.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7, 37-60.
 - 38) 이경희(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39) 이명신 · 김유순(2016). 부부권력, 변화주장,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연구, 13(2), 179-214.
 - 40) 이미숙(1997).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평등연구, 1, 279-288.
 - 41) 이민식 · 김중술(1996). 부부관계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

- 학회지: 임상, 15(1), 129-140.
- 42) 이선화(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 관계: 핵심자기평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3) 이정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4) 이정은 ·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45) 이지민(2015).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족과 문화, 27(4), 112-136.
- 46) 이태손(2015). 기혼자들의 성격특성과 사랑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7) 이희운 · 조유현(2015). 부부의 관계신념지각,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만족,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4), 62-88.
- 48) 임나현 · 하규수(2012).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199-214.
- 49) 임성은(2014). 부부친밀감, 부부여가활동 및 양가부모와의 관계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0) 임영란(1991). 한국개신교 교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1) 오현정(2014). 부부의 자존감, 성적 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2) 정한나(2009).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3) 정화숙(2010).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관계증진 훈련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4) 정화숙(2013). 중년기 기혼남녀의 마음챙김, 부부스트레스 및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95-396.
- 55)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 559-584.
- 56) 조지은(2005).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7) 차근영 · 김석선 · 김민지(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보건사회연구, 37(2), 126-149.
- 58) 최연우(2010). 원가족건강성, 부부친밀감, 고부갈등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9) 통계청(2019). 2018년 혼인 · 이혼 통계.
- 60) 홍구화 · 서영옥(2012).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와 분노에 미치는 효과: 감사의 조절 효과. 인문논총, 29, 157-175.
- 61)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2) 홍순건(2006). 건강한 부부의 특징: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3)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64) Boyd, L.(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540.
- 65) Broucke, S. V., Vertommen, H., & Vandereycken, W.(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4, 285-290.
- 66) Glenn, N. D.(1990). Quantitative research on

-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18-831.
- 67) Hatfield, E.(1984). The danger of intimacy: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 New York: Academic Press.
- 68) Lewis, R. A & Spanin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Free Press.
- 69) Moss, B, & Schwebel, A.(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70)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 Wilson, M. A(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Sage.
- 71) Rollins, B. C., & Cannon, K, L.(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271-282.
- 72) Scanzoni, J.(1975). Sex roles, economics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402-413.
- 73) Schaefer, M., & Olson, D.(1981). Assessment of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7-60.
- 74)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75) Waring, E. M.(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and self disclosure. *Journal of Family Therapy*, 10, 185-192.
- 투 고 일 : 2019년 09월 01일
 - 심 사 일 : 2019년 10월 12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11월 19일